

남북한 역사교과서 속의 중국고대사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

<目次>

- I. 머리말
- II. 지구적 시각을 위한 최근 역사교육의 동향
- III. 남북한의 역사교육 목표 및 내용
- IV. 남북한 교과서에서의 중국고대사
- V. 맺음말

I. 머리말

지구화로 인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날로 폭넓게 확장되어 세계 어디서나 인간 생활의 다양한 방면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화 또는 지구적 시각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 역사교육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7차 세계사 교육과정에서도 지구사에 대한 관심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반영되고 있다. 한국의 현행 세계사 교육과정의 성격을 보면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상호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사 학습에서는 특정한 지역에 편중된 역사를 지양하고, 지구촌적 관점에서 보다 폭넓은 지역의 역사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 이것은 바로 지구적 시각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남북한 역사교과서에 지구촌적 시각에서 중국고대사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교육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세계사-』, 180쪽.

II. 지구적 시각을 위한 최근 역사교육의 동향

오늘날 세계화, 지구화시대에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나 개인들이 서로 연결된 체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 기업, 단체 혹은 개인이 취한 행동이 머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국가나 개인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연결성의 공간적 범위와 밀도는 지구적 질서들 이루는 공동체,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사이에 복잡한 관계의 망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구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상호연결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될수록 인간의 사회활동과 조직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²⁾ 이러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에서도 지구적 시각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역사(Global History)는 세계사, 또는 지구사로 번역할 수 있으나 국내 연구자들의 일부는 전통적인 세계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계사(the New World History)라는 개념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역사, 혹은 지구적 역사는 하나 이상의 사회와 문화권간의 접촉, 하나 이상의 사회나 문화권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에 대한 비교 또는 사회와 문화권간의 관계들 연구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³⁾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의 세계사 교육에서는 서구 문명사가 세계사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이와 같이 서구의 상대적 우월성과 서구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세계사는 20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역사가들은 점차로 서구중심의 역사대신에 문화적 다원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중심부와 주변부, 서구와 나머지로 나누어진 세계가 아니라 다만 각기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들 가진 지역과 집단으로 구성된 세계사가 등장하게 되었다.⁴⁾

이후 서구중심주의적 세계사의 극복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첫째는 유럽사 교재와 세계사 교재를 처음부터 분리하여 편찬하자는 견해, 둘째 다문화적 접근을 강조하는 견해, 셋째는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전체로 묶는 반구(半球,

2) 데이비드 헨드 외(조호제 옮김), 『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35쪽.

3) 강선주, 「세계화 시대의 세계사 교육: 상호관련성을 중심원리로 한 내용구성」, 『역사교육』 82, 2002, 56~57쪽.

4) 이영호, 「세계사 교육의 방향과 가능성」, 『역사교육의 방향과 국사교육 -윤세철교수 정년기념 역사학 논총-』, 2001, 287~288쪽.

Hemisphere)이론이다.

한국의 경우 제7차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은 과거의 교육과정보다 서구 중심적 시각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돋보인다. 제7차 교육과정은 개정의 기본 방향에서 “세계사는 국제이해와 국제적 감각을 익히게 함으로써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세계화의 물결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와 기능을 길러주는 교과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⁵⁾ 또한 제7차 세계사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역사들 지양하고, 지구촌적 관점에서 보다 폭 넓은 지역의 역사들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아시아사, 인도,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정복 이전의 북아메리카사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초기 아프리카사까지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다.⁶⁾

III. 남북한의 역사교육 목표 및 내용

역사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의 진보를 확신하고, 그 발전과정에 내재하는 역동적인 발전 법칙을 찾아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교육의 효용성은 역사적 자아의 발전, 민족의 주체성 함양,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 등에 두고 있다⁷⁾

어느 정부나 정통성 또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단된 지역일수록 보다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는 정통성을 국시의 차원에서 전체주의적인 방법으로 주입시키는 현상이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경직된 성격을 띤 것은 조선 후기 이래 있어왔던 과도한 명분론이 작용한 점도 있지만, 북의 경우 근대적 자아 또는 인간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원리주의적 관념이 인간의 현실세계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였고, 남의 경우 도덕적 물질적 취약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분단시기의 역사인식은 남북한에서 정통성, 냉전이데올로기, 국시, 반공이데올로기, 주체사상 등으로 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역사는 아예 ‘국사’에서 제외하거나, 서술하더라도 남북한 각각의

5) 이상은,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연구개발』, 1997, 456~457쪽.

6) 교육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세계사-』, 1997, 181~182쪽.

7) 전인영, 『중공과 대만의 국사 교과서 비교』, 강우원, 『분단국의 역사 교과서 비교』, 교학사, 1992, 71쪽.

관점에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기술함으로써 상대방 역사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분단 국가사가 곧 현대사로 대치된 것이 지금까지의 현상이다.⁸⁾

먼저 남한에서의 역사교육을 살펴보면,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부터 국사교육이 강조되던 시기는 박정희 군사독재시기였다. 1963년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 정부 아래에서 쿠데타의 정당성과 당시 군사 정권이 내세웠던 이른바 혁명과업을 선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 당시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에서 반공정신, 경제적 효율성, 국민정신, 실천적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시기 역사교육은 '역사'와 '민족'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교육 방침은 '국민교육헌장 정신의 구현', 교육의 이념은 '국적 있는 교육'이었고, 역사교육은 이를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서 김일성 중심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남 강경책을 추구하게 되자 남북의 경쟁이 새로운 위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정부는 북한 공산주의의 남침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내적 체제의 정비에 필요해지면서 1972년 독재적인 유신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기된 것이 국적 있는 교육이 추진되어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는 역사교육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역사적 사실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되었으며, 역사교육은 통치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고 이러한 관점은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선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⁹⁾

그 후 이러한 교육과정은 인간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측면이 반영되어 미래지향적인 정신과 인간 중심적인 성격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보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이수 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과목을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교육내용의 획일성을 해소한다는 방침 하에 한국사 교육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국사 새 교육과정의 목표는 과정 개정의 중점을 반영하여, 다음의 4가지 측면을 강조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민주사회의 시민적 자질 함양을 목표로서 강조하였다. 민주 사회의 바람직한 성원에게 요구되는 '역사의식'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려는 태도' 등을 강조하였다. 둘째, 세계화와 지역화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였다. 세계화의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련 학습을 강조하였고, 한국사에서의 지역화를 위해 향토사 학습

8) 서중석,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성균관대학교출판사, 200, 28~29쪽.

9) 김홍수, 『한국역사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을 강조하였다. 셋째, 역사학습의 과정(過程) 목표로서 추구되어야 할 기능과 능력, 가치와 태도를 강조하였다.¹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 교육과정 내용의 8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원별로 다루어지는 주제 수를 줄이도록 하였다. 주제 수의 감소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술을 가로막는 등 교과서의 내용적인 빈약함을 가중시켰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국 중심의 민족주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어,¹¹⁾ 최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제8차 교육과정에서는 지구촌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자국사(한국사), 세계사, 동양사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과거 군사정부 시기에는 역사과목이 정권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남북한을 비교한다면 남한의 경우에는 민주화 경향으로 역사교육이 과거에 비해 정권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과목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새로운 역사교육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역사교육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지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에서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권이냐 독재정권의 역사교육은 정권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쓰여 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북한의 역사교육은 다른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사회주의 국가 건설과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략하였다. 역사를 오로지 공산주의 혁명을 정당화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신격화하기 위한 사상적 무기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오도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역사연구가 북한의 역사교육에 토대로 인식되어, 역사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¹²⁾ 북한의 역사 과목은 조선역사와 세계역사를 중심으로, 혁명전통을 학습의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교육 내용은 민족문화유산과 계급교양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정치사상 이데올로기 중심의 교육으로 행해져오고 있다. 인문·사회 과 영역의 교과목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교과목까지도 북한 특유의 사상교육 체계가 정립되어 있다. 1970년대까지는 주로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비판과 일본 군국주의, 미국 제국

10) 교육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사회편』, 1995.

11) 한철호, 「한국의 역사교육」,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2003.

12) 최용규, 「북한의 역사관과 역사교육」, 『사회과교육』 제26호, 1993, 83~84쪽.

주의, 남한의 동치 권력자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 비난 등이 핵심 내용이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 위에 이른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인간개조이론을 도입한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역사교육의 중심에는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사가 있다. 북한역사학계는 1960년대 고종세사 연구에서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었지만 역사교육에는 반영되지 못하였고, 1970년대 이후 주체사관 확립으로 역사교과서가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하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과 1990년대 단군릉 발굴 이후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는 중심 교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오히려 북한의 역사교육은 한국사 전반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역사에 관한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학습이 점차 강화되는 길을 걸어왔다.¹³⁾

이와 같이 남북한 역사교육 내용은 커다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역사교육 목표가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 착취사회와 착취계급, 제국주의 등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시키면서 이들 모두 대남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비약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역사교육 목표는 건전하고 객관적 역사인식을 배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 중심의 정치사상을 주입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역사교육을 정치교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며 민주시민을 기르고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려는 최근 남한 역사교육의 목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교수방법도 반복 교육을 통해 체계 가치를 주입하려는 북한의 교수 방법은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 및 합리적 문제 해결 과정을 가르치는 남한의 역사 교수학습 방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¹⁴⁾

또한 교육과정상의 편제와 역사교육 비중에서도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배경에서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사회정치적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개정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교육에 관한 지침으로 김일성의 교시나 당의 강령 등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¹⁵⁾ 북한 교육과정의 변천은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의 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교육과정 변화들 보면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지난 1968년 김일성 과목이 정규과목으

13) 김정인 「북한의 초등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87호, 2003.

14) 김정호·강운선·박계운·송호열·정영순, 『남북한 사회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53~82쪽.

15) 최용규, 앞의 글, 87~90쪽.

로 채택된 이래 1983년의 편제에서는 김일성 과목이 확고하게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과목이 1986년 교육과정에 등장하면서 김일성과 동일하게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리하여 1996년에 개정된 북한의 교육과정을 보면 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¹⁶⁾ 이처럼 1968년 이후 북한에서는 김일성 관련 교과가 들어가면서 점차 역사에서 현대사에 김일성 일가의 혁명역사로 대치된 교과목을 설정해두고 있다.¹⁷⁾ 즉 1968년부터 정치사상교육의 일환인 혁명전통교양 교육이 역사교육에 투입되면서 현대사에 해당되는 '혁명력사'를 일반역사와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조선력사」, 「세계력사」 등의 일반역사는 위축되었으며, 인민학교에서는 「력사」 과목이 사라지게 되었다.

IV. 남북한 역사교과서 속의 중국고대사 인식

본 장에서는 남북한 세계사 교과서에서 중국고대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북한의 최근 세계사 교과서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북한의 경우에는 1980년대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히면서, 먼저 남한교과서를 살펴기로 하겠다.

1. 남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한에서는 현행 7차 교육과정에 의해 종전 교육과정 내용의 8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원별로 다루어지는 주제 수를 줄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역사교육이 종전에 비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역사학 본래의 특성을 살리려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교통과 정보망의 발달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오히려 세계사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한국 역사교육학계의 현실이다.¹⁸⁾ 그러므로 본

16) 한만길, 「동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서울, 1997, 164쪽

17) 정영순·권성아·정지웅·한운석, 「동일대비 북한교과서에서의 교육이념 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2, 20~35쪽.

고에서 다룬 남북한 세계사교과서에서의 중국사 인식 고찰은 주변국과의 역사전쟁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최근 남한에서의 세계사교과서에는 중국고대사 서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행 여러 가지 출판사 중 교학사의 『고등학교 세계사』¹⁹⁾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제 1단원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중 제4절 “왜 세계사를 배워야 하는가?”에서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들 “세계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넓게 보아 우리는 한자 사용권에 속하며, 동아시아에서 발전된 사고 체계, 종교, 예의범절 등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 등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서양의 역사에서 발달한 문물이 침투하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는 우리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²⁰⁾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세계사 교과서 서술은 크게 동아시아사와 서구 유럽사의 양대 산맥으로 구성 체계를 이루고 있고, 기타 지역 중에서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세계를 보조단원으로 첨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세계사 중에서도 동양사, 특히 주변국의 역사 중 중국 역사가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명시하여 동아시아 역사 서술에서도 중국사 중심으로 서술하는 가운데 일부분을 일본사 서술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중국사 서술 중에서 고대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제2단원 문명의 새벽과 고대문명에서 4대 문명발생지의 하나로 제5절에서 “중국문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황하 중류의 황토지대에는 기원전 5000년~3000년경에 채색 토기들 가진 신석기 문화(양사오 문화)가 발달하였으나, 기원전 2800년경에는 흑도와 회도들 가진 신석기 문화(룽산 문화)가 발달하였다. 양쯔강 하류와 황하 하류에서도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중국 각지에서 청동기가 사용되었다. 청동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인데,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중국 최초의 국가는 하(夏)로, 우왕이 건국하였다고 한다. 하는 산시 성 서남부와 허난 성 서북부에 걸쳐 있었는데, 발굴조사로 기원전 2000년경경의 성벽에 둘러싸인 궁궐 유적지와 함께

18) 정영순, 「한국 역사교육의 반성과 과제」,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6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6. 96~97쪽.

19) 김은숙·조한옥·주명원·최준개·남한호,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2002.

20) 위의 책, 16쪽.

청동기 문화가 발견되어, 이 곳이 하의 유적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은은 그 실재가 확인된 중국 최초의 왕조이다. ... 은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은 점을 쳐서 천제(天帝)의 뜻을 물어 결정하는 제정일치적인 신권정치가 행하여졌다. ... 주왕은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도읍 부근의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일족과 공신에게 봉토로 나누어 주고 제후로 임명하였다. 그 대신 제후는 주 왕에게 공납과 군역의 의무가 있었다. 제후 또한 자신의 직할지를 제외한 봉토를 가신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로부터 공납과 군사의 봉사를 받았다. 땅을 매개로 한 이러한 정치조직을 봉건제도라고 한다. 이 봉건제도는 계약관계들 기초로 했던 서양 중세의 봉건제도와 달리 혈연적 관계들 기반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봉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친족사이의 규칙적인 종법(宗法)이 만들어졌다.²¹⁾

이 단원에서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소개할 뿐 새로운 역사인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음에는 제3단원 “고대 아시아 세계” 중 제1절 “고대 중국의 고대사회”에서 중국 고대사를 서술하는 가운데 소단원으로 춘추전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와 경제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2절 “진·한 시대의 중국”에서 진의 통일, 한의 발전, 후한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제3절 “고대 중국 문화의 발전”에서는 제자백가의 출현, 한대의 문화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4절 “고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세력의 확대, 한반도와 일본,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단원으로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 단원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관한 서술 내용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단원에서는 “사무엘 헌팅턴은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우리나라를 중국의 문명에 포함시키고 있다. 외국인의 눈에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중국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는 어떤 점이 유사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 까?”라는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중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소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중국 주변의 국가들에 중국 문화가 퍼지게 되면서 점차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은 한자, 유교, 음력, 한자로 번역된 불경을 매개로 한 불교와 같은 중국 문화가 퍼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지리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몽골 고원, 한반도, 일본 열도, 베트남 북부에 걸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21) 위의 책, 41~42쪽.

위치하고 서쪽에는 거대한 산맥이 있어 비교적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고립되어 역사가 전개되었다.²²⁾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대시기부터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중국문화권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제 3단원“아시아 세계의 확대와 동서 교류” 중 제1절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확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더욱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란 중국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일부들 포함하여 한국, 일본 등을 일컫는다. 특별히 이 지역을 동아시아 세계라고 부르는 것은 당대에 완성된 중국의 문화들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서는 문화적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²³⁾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동아시아의 세계질서는 이미 이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소단원 “위·진·남북조와 수·당의 변천”에서 “춘추전국시대라는 550년간의 분열 시대들 통일한 진이 만리장성을 남겨놓고 2대 만에 망했듯이, 400년 가까운 위·진·남북조의 분열시대들 통일한 수 왕조도 오늘날까지 이용되는 대운하를 남겨두고 2대 만에 멸망하였다. 왜 수는 진과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게 되었을까?”라고 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여야 하는지 제기한 후 “수의 통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고 있다.

8세기 말 북주의 외척 양견(수 문제)은 수를 세우고 진을 공격하여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수의 문제는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하는 한편 토지제도과 세금제도 군사제도들 정비하였다. 양견은 강남 지방의 세금을 운반해 오기 위해 화북과 강남을 잇는 대운하를 완성하였다. 또한 돌궐·타이완·임읍 등을 공격하고 3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고구려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외 전쟁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많은 부담을 지게 된 민중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켜, 수는 2대 36년 만에 멸망하였다.²⁴⁾

여기서 수의 멸망 요인을 대외 전쟁, 즉 고구려와의 전쟁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민중의 반란에서 찾고 있으며, 당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2) 위의 책, 52~53쪽.

23) 위의 책, 92쪽.

24) 위의 책, 95쪽.

7세기 초 수의 장군 이연(당 고조)이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세웠다. 태종(이세민)은 동돌궐과 토번을 복속시키고 서역지방을 장악하여 동서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나라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고종 때에는 서돌궐을 멸망시키고 신라와 동맹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한을 능가하는 대제국을 수립하였다. 당은 수의 제도를 계승하여 윤령에 의해 나라를 다스렸다.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제를 실시하였으며,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균전제), 그 대신 국가에 세금(조·용·조 제도)을 내고 군역에 종사하도록 하였다(부병제).

이 내용에서는 당이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제3절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각국의 발전”에서는 “우리는 동아시아 세계,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아시아의 동쪽’을 의미하는 이 용어를 특별히 사용하는 것은, 이 지역이 단순히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문화란 과연 어떤 요소들 공유하고 있을까?”라고 전제한 후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소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수·당 통일 국가의 등장은 주변 민족에 영향을 미쳐 당 초기에 한자, 윤령, 유교, 한역 불경을 매개로 한 불교와 같은 공통된 문화요소들 가진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당은 주변 지역에 8도호부를 설치하여 동북·몽골·서역·베트남을 직접 지배하였으므로 이 지역에는 당의 지배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화 요소가 정착하게 되었다. 중국 주변의 신라·발해·일본 등은 당과 교류하면서 당의 제도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켰으므로,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화 요소가 정착하게 되었다.²⁵⁾

위의 내용에서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배경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습 자료에 “동아시아의 도당 유학생” 제목으로 “당에는 주변 국가에서 유학 온 사람도 많았다. 당은 국적에 관계없이 재능에 따라 사람을 등용하였으므로, 유학생 중에는 과거 시험을 거쳐 당의 조정에서 관리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 고구려 연남생, 발해 왕자 대문예, 신라의 최치원, 일본의 아베 나카마로, 페르시아 왕자 비로즈 등이 그 대표적 인물들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즉 당 문화를 배우기 위해 주변국의 유학생들이

25) 위의 책, 98쪽.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당의 문화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중국에 전파된 불교는 인도 불교 중에서 좀 더 포용성이 많고 자력에 의한 깨달음보다 타력에 의한 구제들 중시하는 대승불교였다. 이는 한역 불경을 통해 한국, 일본, 베트남에까지 전해졌다. 4-9세기에 동아시아는 불교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여 종교문화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서술함으로써 동아시아 고대 문화가 당나라 등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북한

본고에서는 자료 구입의 한계 상황에 의해 본인이 구입할 수 있었던 북한의 1980년판 고등중학교 4학년 『세계력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²⁶⁾ 이 교과서의 서술 체계는 크게 고대편, 중세편, 근대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시대구분에 있어서 남한교과서와 서술 상 다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진나라, 한나라의 진한시대부터 중세로 인식하고 있어, 이 시기부터는 중세편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고대사 관련 최초의 내용은 제4장 “고대문화” 제1절 고대동방문화 부분에서 “문자”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고대 사람들은 오랜 기간의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노예제사회의 사회제도와 그 시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을 반영한 문화들 창조하였다. 고대 동방나라들에서는 벌써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교유한 자기의 문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 애굽이나 인도인들보다 좀 늦기는 하였으나 중국인들도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문자들 만들어 썼다. 중국인들은 처음에 <날일>자는 <☉>의 형태로, <내전>자는 <ㄱ ㄹ>의 형태로 표시하였다. 그러던 것을 점차 이러한 그림문자들을 2개 이상 여러모로 결합하여 더욱 복잡한 뜻을 나타내는 한자로 발전시켰다. 이처럼 중국글자는 다른 나라들의 자모글자와는 달리 뜻글자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들은 노예주 계급이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들은 글을 배울 길도 없었으며 또한 그들 사용할 수도 없었다.²⁷⁾

26) 진영균·리삼실 『세계력사 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평양, 1980. 북한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주체사상이 강화되면서 세계력사 보다는 조선역사를 강조하여 이들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특히 조선 근현대사 이후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 역사를 강조하여 세계 역사는 비중이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1980년대 이후 세계역사 서술 자체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여기서 남한 교과서 서술방식과 상당히 다른 측면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역사 서술 방식이 고대 노예제 사회를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지식”에 대한 설명 방식 역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동방나라들에서 관개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전문지식도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력서를 만들어 썼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애굽과 중국, 인도의 력서인데 그것들은 모두 1년을 12개월로 나누었다. 다만 중국에서는 한달을 큰 달은 30일, 작은 달은 29일로 정한데 기초하여 19년 동안에 7개의 윤달을 두고 윤달이 있는 해는 13개월로 하였을 뿐이었다 ... 고대 중국인들은 상나라 때에 일식과 월식을 알았으며 기원전 4세기에는 수백개의 별들을 기록한 별자리표를 만들었다 ... 이와 같이 고대 동방나라들이 이룩된 문화적 성과들은 모두 피착취 인민대중인 노예, 수공업자, 농민들의 지혜와 창조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가혹한 전제군주제도의 지배 밑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여지없이 짓밟힌 결과 문화의 창조자들은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는 그 향유자로 될 수 없었다. 앞서 발전한 고대동방나라들의 문화는 력사 무대에 뒤늦게 등장한 구라파나라들의 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²⁷⁾

이러한 서술은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들 간에 중·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뽕거리 외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북한이 주체사상의 영향 하에 주체적인 역사서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서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 노예제사회가 피착취계급인 노예들에 의해 이룩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 동방고대문화가 서양고대문화보다 앞서 발전하여 서구문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수·당시대까지 고대시기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중세편의 중국고대사 내용 중에서 수·당시대까지 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는 제1장 중세동방나라들 중 제1절 중국에서 “봉건제도 형성시기의 중국”에서 진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주나라 말기에 들어서면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었다. 노예들 비롯한 인민대중의 강력한 반항에 부닥친 노예주들은 어떻게 하면 인민들의 반항을 억누르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착취해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을 궁리하게 되었

27) 진영균·리삼실, 앞의 책, 28쪽.

28) 위의 책, 29쪽.

다. 궁리 끝에 농들은 제 땅을 작은 조각으로 갈라 노예들에게 소작주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대지주 즉 봉건령주들이 봉건적 소작농 즉 농노들을 확립하는 봉건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중국에서 첫 봉건국가는 진나라였다 ... 폭군이었던 시황제는 자신의 향락을 위하여 수백만의 인민들을 억지로 내몰아 전국각지에 700여개의 궁전을 짓고 매일과 같이 술 놀이로 날을 보내었다. 수도 함양에 세운 아방궁건설에만도 70만 명의 농민들이 동원되었다. 시황제는 또한 의학, 농학 및 점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모든 책들을 불사르게 하고 기원전 212년에는 460명의 학자도를 생매장하여 죽였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폭압정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은 사람은 가옥을 벗겨죽이는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는 폭군이였다.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시황제의 학정에 참을 수 없게 된 농민들은 그가 죽자마자 투쟁에 일떠섰다.²⁹⁾

그리고 한나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류방은 기원전 202년 창안을 도읍으로 정하고 한나라를 세웠다. 무제(기원전 140-87년) 통치시기에 한나라 통치배들은 정복전쟁에 미쳐날뛰었다. 농들은 북으로는 흉노족을 치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세력을 뻗었으며 남으로는 오늘의 북부옌남지역을 침략하였다. 한나라침략자들은 동으로는 기원전 109년 고조선에 침입하였으나 우리 선조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끝내 쫓겨나고 말았다. 정복 전쟁의 결과 봉건지주들과 대상인들은 더욱 부유해졌으나 농민들은 무거운 조세부담으로 더욱 못살게 되었다. 땅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농민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굶어죽는 사람들이 수다하였다. 농민들을 더욱 못살게 한 것은 한나라 말기에 벌어진 동치계급집단 속에서의 정권다툼이였다. 동치배들은 저들의 개색움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한층 강화하였다.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농민들은 드디어 184년 장각의 지휘 밑에 폭동을 일으켰다 ... 농민폭동들은 실패하였으나 이에 큰 타격을 받은 한나라는 다시 추서지 못하고 220년에 망하게 되었다.³⁰⁾

다음에는 수·당 시대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나라가 망한 후 중국은 350년 이상이나 분열되어있다가 589년에야 비로소 수나라에 의하여 통일되었다. 수나라 통치배들은 안으로는 농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계속 침략전쟁을 벌렸다. 특히 양제(604-618년)는 농민들의 피땀을 짜낸 돈으로 수많은 궁전들을 짓고 매일과 같이 술놀이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가 귀족들과 함

29) 위의 책, 32쪽.

30) 위의 책, 33~34쪽.

게 배들 타고 술놀이들 한 때에는 항쪽 강기슭에서 배들 끄는 농민들만도 한번에 8만여 명씩이나 강제로 동원되었다 ... 수나라 동치배들은 이웃나라들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자주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당시 세계의 강국이었던 고구려에 대한 612년 침략은 그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남에게 예속되기를 원치 않았으며 사대주의가 없었던 용감한 고구려 사람들은 수백만의 침략자들을 룡동성전투에서와 살수전투에서 쳐물리치고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수나라 침략자들은 고구려에 대한 침략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당시 수나라의 침략을 받은 나라들 가운데서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 낸 것은 오직 고구려뿐이었다. 수나라는 고구려 침략에서 당한 참패와 농민 폭동에 의하여 드디어 618년에 망하고 말았다.³¹⁾

수나라 말기에 일어난 농민폭동을 리용하여 정권을 잡은 귀족출신 리연은 창안을 수도로 정하고 618년에 당나라를 세웠다 ... 당나라 동치배들은 대내적으로 착취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대외침략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 당침략군은 645년에는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고구려 인민의 용감한 반격에 부딪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당나라가 선후 약 50년동안은 봉건제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당나라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봉건동치배들이 감행하는 끊임없는 침략전쟁의 부담, 대토지소유의 장성에 따르는 농민들의 몰락에 의하여 8세기부터 당나라의 봉건동치체제는 형클어지기 시작하였다 ...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힌 농민들은 9세기 중엽부터 자주 폭동을 일으켰다. 이러한 폭동들은 875년 산둥지방에서 일어난 황소가 지휘하는 폭동을 계기로 전국을 휩쓸었다 ... 농민폭동은 당나라의 숨통을 짓눌러놓았다. 당나라는 이 타격으로 입은 상처를 가시지 못한채 907년에 망하고 말았다.³²⁾

이와 같이 수·당 시대에 대한 서술 내용 역시 계급투쟁에 입각하여 지배층의 착취에 못이긴 피지배층이 투쟁을 전개하여 지배층을 무너뜨리므로써 고대 왕조가 교체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피지배층의 끊임없는 투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의 세계사 교과서는 서구와 동양 중심 역사 서술이 일 반적인 가운데 동·서양사를 시대별로 단원을 구성하여 서술하면서 동남아시아사, 서아시아

31) 위의 책, 34~35쪽.

32) 위의 책, 35~37쪽.

아사, 아프리카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양사 서술 내용은 대체로 주변국인 동아시아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가운데 특히 일본사보다는 중국사 중심으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역사관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지구촌적 시각에 입각하여 중국을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사관인 유물론이 전반적인 역사관으로 전제되어 인민들의 투쟁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가운데 왕조 변천사에서 왕조 붕괴의 배경에는 인민을 착취하는 지배층 특히 국왕이 사치들 일삼아 멸망하였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에서는 서구중심역사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세계사들 서구중심 역사에서 탈피하여 다문화 중심 역사서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새롭게 역사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사 대 서구문명사의 대립은 한국에서도 한국사-세계사 구조가 합당한 것인가를 묻게 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세계사는 균형을 취했다고는 하나 본질적으로 서구중심이다. 하지만 한국이 동아시아에 속해 있으므로 이제는 동아시아사들 생각해야한다는 역사교육학계의 움직임에 의해 제8차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동아시아사들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동아시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구촌적 시각의 동아시아사들 새롭게 재구성할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세계화, 지구촌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여 폐쇄된 사회들 열어 과거 사회주의적 시각에 매몰된 역사관을 폐기하고 개방적이고 지구촌적 세계관, 역사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Chinese Ancient History in the History Textbooks of South and North Korea

Chung, Young-soon(Associate Professor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 Introduction

The ever-expanding network formed by globalization is greatly affecting the daily lives of all people in many different ways. Accordingly, the interest of academic world is also shifting toward globalization, or to a more global perspective. In Korea, the history curriculum of the 7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which is currently in effect, reflects a great deal of interest in the topic of globalization. The current history curriculum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statement, “in today’s world, the idea of foreign relationships has surpassed that of the interchange between nations—the whole world has become a single bloc that unites everyone on planet Earth.”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study of world history should be taught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ization and deal with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instead of focusing on any one particular region.”¹⁾ This statement is a good example of global perspectives becoming better reflected in education systems. This paper, in line with this view, will examine the content of ancient Chinese history in the history textbooks used in North and South Korea.

1) Ministry of Education, The 7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World History p.180.

II. Recent Trends of History Education toward a Global Perspectiv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ll nations and people are interconnected. Therefore, any action by a nation, enterprise, organization, or individual can affect a distant nation or people tremendously. Interconnections at the supranational level spans vast ranges and densities, forming a complex web of relationships among communities,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and MNCs. Furthermore,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he interactions and interconnections of the global network are strengthened, bringing changes in the basic structure of social activities and organization of society.²⁾ Facing the era of globalization, education systems are beginning to place more emphasis on teaching the global view.

In high school textbooks in Korea under the 7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there are many signs of attempts to overcome the Euro-centric view of history that prevailed in the past. The Ministry of Education states the reason for the revision of the education system as: "The subject of World History should aim to strengthen knowledge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in our perception of the world in order to help students to exhibit the appropriate attitudes and capabilities necessary as inhabitants of a global community."³⁾ The 7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also proclaims that "the study of world history should be taught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ization and deal with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instead of focusing on one particular region." Therefore, the new curriculum has been designed to include studies on the Middle East, India, Southeast Asia, the pre-colonization period of North America, and ancient sub-Saharan Africa.⁴⁾

2) Held, David, et al. tr. Cho, Hyo-Je. GlobalTransformation. Seoul: Changbi Publishers Inc. 1999. p.35.

3) Lee, Sang Eun. Committee of Education Curriculum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Dep. Seoul: Sol. 1997. pp.456-45.

4)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on Social Studies World Histor. 1997. pp.181-18.

III. The Content and Objective of the History Curriculum in North and South Korea

For South Korea, the emphasis on teaching history was focused upon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ism during the dictatorship of President Park Jung Hee. The 2nd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promulgated in 1963, aimed to justify the dictator's *coup d'état*, serving as propaganda to support what the military regime had advocated, the so-called Revolutionary Duty. In those times, the objective of education was characterized by anti-communism, economical efficiency, nationalism, and practical education. During this era, the focal point of history education was represented by words such as "hentage," and "nationalism." The education policy was determined to "realiz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of National Education," while the purpose of education was to "emphasize nationality," with history curriculum serving as one of the main means of achieving this goal.

Later on, this approach was criticized for neglecting the focus on humanity. The criticism was taken into account, and a more future-oriented, ethnocentric curriculum implemented.

The current 7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for History aims to reduce the learning content to 80% of previous levels, as well as the number of themes dealt with in each chapter. However, this reduction has resulted in the omission of facts, making the content of the textbook less informative. In addition, critics have argued that even the revised edition remained based on a nationalistic ideology⁵⁾, and it made way for the creation of the 8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which has separated the history curriculum elements into the History of Korea (History of the Motherland), World History, and the History of Asia to help develop students' global perceptions of the world.

In South Korea during the military regime, history curriculum was used as a means to instill a political ideology. However, when comparing North and South Korea presently, it is clear that history education in South Korea has become more democratic, moving away from instilling ideology and toward nurturing students' ability to think critically. It is doing

5) Han, Cheol-Ho. History Education of Korea How are we teaching the Colonization Period of Korea 200.

this by offering more diverse interpretations of historical events and new teaching methodologies. On the contrary, the history curriculum taught in North Korea still serves as a means to support and justify Kim Il Sung and Kim Jong Il's regime. The propaganda is clearly stated in the content of North Korean history textbook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ases in which societies under socialist or dictatorial regimes manipulated the history curriculum taught in schools to justify the government's wrongdoings. Especially in North Korea, education in history has lost its true purpose, and has been degraded into a political tool to justify building a socialist nation and maintaining the solitary dominance of Kim Il Sung. North Korea's view of history education as a mere tool to justify its Communist Revolution and deify Kim Il Sung and Kim Jong Il has stood unchallenged, serving as the basis for all historical research within the country. This perspective clearly distorts the purpose and objectives of teaching history.⁶⁾ North Korea's history curriculum centers on the history of Chosun and World History, with studies focused clearly on the idea of Revolution and designed to strengthen in students their sense of national heritage and socialist ideology. In other words, the education system in North Korea has been unfaltering, centering on instilling ideology since the liberation. The ideological teaching style that is uniquely North Korean has penetrated into all areas of study, not only in liberal arts and sociology subjects, but also in science-related courses. Up until the 1970's, the main themes of study were criticisms of capitalistic society and the immense hatred toward Japanese nationalism, American imperialism, and the political leaders of South Korea. However, since the 1980's, the curriculum has expanded to include content such as Kim Il Sung's Juche ideology and Kim Jong Il's Theory of Human Remodeling.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urriculum and the point of importance in education. Sinc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curriculum is limited, we lack the knowledge of when or on what grounds changes have been made. We can only conjecture that revisions are made according to socio-political changes. In North Korea, Kim Il Sung's instructions or the principles of the Communist Party exercise the largest single

6) Choi, YongGyu, North Korea's Perception of History, Society and Education, vol.26, 1993, 83-84.

influence on the education system.⁷⁾ It is possible to say that changes in North Korea's curriculum were part of a process to deify the two leaders. From 1968, Revolutionary Heritage Teachings, a part of the political ideology teachings, were incorporated into the history curriculum, forming a clear differentiation between the "History of Revolution," which is similar to modern history, and general history. Therefore, the emphasis on general history, such as the "History of Chosun," and "World History" diminished, and was completely removed from the curriculum in public schools.

IV. Views on Ancient Chinese History in the Textbooks of North and South Korea

Textbook of World History in the South Korean curriculum focus on descriptions of Europe and Asia, segmented according to time periods. In addition, the history of Southeast Asia, the Middle East, and Africa are also dealt with. When dealing with Asian history, there is a tendency to focus on East Asia, especially on China. The historical view of Chinese history is considered fairly objective. It clearly states that the Chinese influence on East Asia was immense, but also points out that the fall of the Sui Dynasty was caused by a large-scale war against the Koguryo Dynasty.

In contrast, North Korea's interpretation of history is largely based on materialism, a socialistic concept of history. Therefore, the content of DPRK textbooks primarily focus on the people's struggle to overcome the tyranny of the royal class. It emphasizes that the fall of Chinese dynasties were caused by royal excesses and their exploitation of ordinary people. However, North Koreans do agree that Koguryo played an influential role in the downfall of the Sui Dynasty.

Western society, with the U.S. at its core, has been teaching Euro-centric history curriculum to its students. However, some scholars are suggesting the need to diversify the content of world history textbooks to include multicultural views, advocating a revision of

7) Chai, YongGyu pp.87~90

history curriculum. The conflict between world history versus the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also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content of Korean History and World History in South Korea's curriculum is appropriate. Although South Korea's textbook on World History is considered objective, its views are essentially Euro-centric. Scholars claim that as part of East Asia, Korea needs to contemplate the history of East Asia. This imperative has prompted a reorganization of the East Asian curriculum in the 8th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In other words, it is crucial for South Korean scholars to develop a global perspective of East Asia history that can logically re-organize historical events to help overcome the conflicts within the East Asian community. Likewise, North Korea would need to open itself up to the worl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iscarding obsolete socialist historical perceptions and replacing them with a more global view of the world in order to do so.